

메르켈 총리, 기후정치에서 EU 리더십 촉구

메르켈 독일총리, GCF에 7억5천억 유로(한화 약 1조 원) 공약,
기후과학에 대한 정치인들의 진지한 자세 촉구

앙겔라 메르켈 독일총리가 진통을 겪고 있는 2015 UN 신(新)기후협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하며, 앞으로 1년간 독일과 EU의 리더십을 약속했다.

베를린에서 7월 14일-15일 열린 피터스버그 기후대화(Petersberg Climate Dialogue)에 참석한 환경장관들과 UN기후변화 대사들을 대상으로 연설하면서, 총리는 UN의 기후변화 금융메커니즘으로 새롭게 창설된 녹색기후기금(GCF)의 초기 재원조성을 위해 7억5천만 유로(한화 약 1조 원)를 공약했다. GCF는 2014년 말까지 150억 달러가 필요하다.

메르켈 총리는 "행동하지 않는다면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지, 우리가 반드시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 매번 늦어질 때마다 그 대가는 더 커진다. 스턴 보고서가 이를 명확히 해주었다"면서 기후변화의 미래비용에 대한 2006년 영국정부의 연구를 언급했다.

스턴 보고서(Stern Review)는 2006년 당시 영국정부의 수석 경제학자 니컬러스 스톤이 기후변화를 경제학적으로 분석한 것으로, 지구온난화를 무시하고 대책을 실천에 옮기지 않는다면 1930년대 대공황에 맞먹는 경제 파탄을 겪을 수 있으며, 그 비용은 1·2차 세계대전보다 더 높을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세계 주요 경제국들이 탄소오염 저감과 녹색에너지 투자를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한 총리는 "필요한 결정들이 지연되고 있다"며 지지부진한 기후변화협상과정에 대한 불만을 털어냈다.

유럽연합(EU)은 올 10월경 야심찬 기후·에너지 종합대책을 확정하면서 전 세계에 "분명한 신호(clear signal)"를 주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EU는 온실가스 40% 감축을 원한다. ... 재생에너지 비율은 적어도 27% 상승을 바라고 있다"며 EU의 에너지 효율 목표달성을 위한 노력에 지지를 표명했다.

메르켈 총리가 40%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지지한 것은 매우 중요한데, 현재 일부 EU 동유럽 회원국이 40% 목표에 반대하는 가운데, EU 28개 회원국이 에너지계획 협상을 다시 시작하기 때문이다.

또한 총리는 현재 EU 배출권거래제(ETS) 개혁 안을 지지하며, "배출권(allowances)의 지나친 과잉공급"으로 "당장 감축조치를 이행해야 할 인센티브가 거의 없다"고 말했다.

[번역_독일 1조]

독일의 에너지 계획은 수 달 내에 발표될 예정으로, 청정에너지설비용량(clean energy capacity)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가계획을 담을 예정이다.

독일 환경부 장관으로서 1995년 베를린 UN 기후정상회담 의장을 맡았던 메르켈 총리는 최근 기후변화가 내년 G7 의장국인 독일의 중심이슈가 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독일의 브라질 월드컵 우승을 직접 관람하고 귀국한 탓에 피곤해 보이기도 했던 총리는 기후과학을 다루는 UN 정부간기후변화패널(IPCC) 최신보고서가 수 차례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 인해 초래될 영향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며 깊은 유감을 표시했다.

하지만 최근 중국 방문을 통해 긍정적인 미래도 확인했다면서, 세계 최대탄소배출국 중국의 지도자들이 오염저감의 장점을 확인하고 있다고 확신했다.

“여기서 분명히 하고 싶다. 우리는 긍정적인 신호를 보고 직접 확인했다. 중국의 정치지도층은 이 과업의 규모를 잘 파악하고 있다,” “분명해지고 있는 것은 번영과 부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만일 우리가 보다 야심찬 목표에 동의한다면, 성장과 기후변화 방지는 함께 갈 수 있다.”

UN 녹색은행이라고 할 수 있는 GCF에 대한 독일의 1조 원 자금지원은 많은 환경단체들의 환영을 받겠지만, 자금분배 추진일정(timeframe)이 관건이다.

독일 그린피스의 마틴 카이저(Martin Kaiser) 역시 GCF와 EU 2030목표에 대한 메르켈 총리의 언급을 반기면서, 이번 연설은 “총리가 UN 기후협상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는 명확한 시작점”이라고 묘사하기도 했다.

하지만 증가하는 독일의 국내 탄소배출과 석탄사용과 관련된 연방정부의 계획이 진짜 시험대(real test)에 오르는 것은 유럽이사회 회의가 열리는 10월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 14 July 2014, by Ed King, <http://www.rtcc.org/2014/07/14/merkel-returns-to-climate-politics-with-call-for-eu-leadership/>